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	보 도 자 료	
보 도 일 시	2026.11.20.(금) 0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배 포 일 시	담당팀	ESG혁신팀
2026.11.20.(금) 09:00	담 당 자	조성배 팀장(053-230-1181) 김민지 주임(053-230-1189)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· 한국뇌연구원, 대구 동구 이웃에 사랑의 연탄 5,000장 전달

- 대구혁신도시 이웃 기관 첫 공동 봉사,
양 기관장과 직원 100여 명이 안심동 5가구에 직접 배달 -

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원장 김형철, 이하 진흥원)과 한국뇌연구원(원장 이승복, 이하 뇌연구원)은 11월 19일(목) 대구 동구 안심1·2동 일대에서 「2026 사랑의 연탄 나르기」 공동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봉사는 대구 동구에 함께 자리한 두 기관이 2026년 9월에 맺은 기관 자원 공동 활용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마련됐다. 그동안 기관별로 해 오던 연탄 봉사를 올해 처음 공동으로 추진해 지원 규모를 키웠다.

□ 두 기관은 사단법인 사랑의연탄나눔운동에 연탄 5,000장을 살 수 있는 후원금 500만 원을 함께 전달하고, 이 가운데 1,500장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안심동 일대 소외계층 5가구에 직원들이 직접 배달했다.

※ 사랑의연탄나눔운동 : 2006년부터 대구와 경북지역 소외계층에 연탄과 난방용품을 지원해 온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공익법인

○ 양 기관장과 직원 100여 명은 안심근린공원에서 발대식을 마친 뒤 5개 조로 나뉘어 골목길 가구마다 연탄 300장씩을 직접 날랐다.

○ 나머지 3,500장은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대구 동구 지역 소외계층 가구에 차례로 전달될 예정이다.

○ 행사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겹친 만큼 시험장 주변 지역은 봉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량 이동 경로도 시험장을 피해 정하는 등 수험생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.

□ 대구는 지금도 1,800~2,000여 세대가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지역으로, 최근 연탄 가격 상승과 민간 후원 감소로 저소득 가구의 겨울나기 부담이 커지고 있다. 두 기관은 이번 봉사가 지역의 에너지 취약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.

□ 진흥원 김형철 원장은 “이웃한 두 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땀을 흘리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“며 “앞으로도 뇌연구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꾸준히 넓혀 가겠다“고 밝혔다.

○ 뇌연구원 이승복 원장은 “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나르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 느낀 시간이었다“며 “지역에 뿌리내린 공공기관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계속 실천하겠다“고 말했다. 〈끝〉.

붙 임 2026 사랑의 연탄 나르기

<「2026 사랑의 연탄 나르기」 공동 봉사활동 사진>



[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철 원장(앞줄 가운데 팻말 오른쪽)과 한국뇌연구원 이승복 원장(팻말 왼쪽, 양 기관 직원들이 발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]